

임성근 '음주운전 3회' 후폭풍...구독자 감소 여론 갈렸다

등록 2026.01.19 09:28:50



[서울=뉴시스] 임성근. (사진=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 캡처) 2026.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해 주목 받은 셰프 임성근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직접 고백한 뒤 유튜브 구독자 이탈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를 했던 적이 있다"며 "형사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었고, 면허를 다시 땀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상처 받지 않겠느냐"며 "잘못한 건 잘못된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숨기고 싶지 않다, 사과하는 게 맞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임성근은 같은 날 자필 사과문도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라며 최근 커진 관심 속에서 과거 잘못을 덮고 활동하는 것이 기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린 이후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감소했다. 음주 운전을 언급하기 전 약 99만명으로 100만명 돌파를 앞뒀던 구독자 수는 19일 오전 9시 현재 97만7000명대로 감소했다.

임성근 행보에 여론은 갈리고 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 "세 번은 상습" 등 책임을 강하게 묻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반면 일각에선 "직접 고백한 점은 지켜보자" "이후 행보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